

주디스 버틀러의 몸과 물질의 정치학: 인간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에서

이승준

(신)유물론의 버틀러 비판

2008년에 출판된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서문」을 작성한 스테이시 앨리모는, 루스 이리가레와 주디스 버틀러(그리고 어쩌면 줄리아 크리스테바도)와 같은 “포스트모던한 페미니스트들”의 철학은 “몸의 물질성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퇴각했다(retreat)”고 말한 바 있다.¹⁾ 클레어 콜브룩(Claire Colebrook) 역시 들뢰즈의 차이의 철학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버틀러에게 유물론적 비판을 가한다.

“버틀러의 작업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고 엄격한 비판을 제시한 페미니스트들은 버틀러가 언어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데 무능력(inability)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버틀러는, 언어나 차이를 단지 물질에 부과된 형식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사건 이후에만 나타나는, 즉 자아의 수행 ‘이전’에 존재했어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²⁾한다.

콜브룩이 보기에, 버틀러에게 “모든 물질은 반복과 수행”의 산물이며, 따라서 “삶과 물질”은 “수행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버틀러가 이해한 몸(물질)을 생산하는 이러한 반복은 “언제나 동일성의 반복이며, 그러한 동일성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종속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³⁾ 수잔 헤크먼(Susan Hekman)과 캐런 버라드(Karen Barad)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버틀러는 페미니스트들이 물질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대한 담론적 이해가 페미니즘에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역설”하는데, 이러한 버틀러의 접근법은 버틀러가 “담론적 실천이 어떻게 물질적 몸을 생산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담론적 실천의 수동적 산물로 재기입”함으로써 “말과 사물의 형이상학”에 종속되게 만든다.⁴⁾ 이러한 비판 위에서 버라드는 “물질은 단순히 ‘일종의 인용가능성’이 아니며, “수행성은 ‘반복적 인용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 내부 활동(intra-activit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버틀러를 향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⁵⁾ 이러한 비판은 크게 다음의 주장들로 정리될 수 있다.

<(1) 주디스 버틀러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이다.(앨리모) (1-1) 포스트모던한 사람들(데리다, 푸

- 1) *Material Feminisms*, edited by Stacy Alaimo, Susan Hekma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p. 3.
- 2) Claire Colebrook, “on not becoming man”, *Material Feminisms*, p. 68.(일부 수정)
- 3) Claire Colebrook, “on not becoming man”, *Material Feminisms*, p. 70.
- 4) 이에 대해서는 Susan Hekman, “Constructing the ballast: an ontology for feminism”, *Material Feminisms*, p. 104-105.
- 5)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Material Feminisms*, p. 140-146.

코, 이리가레, 크리스테바, 그리고 버틀러)은 몸[의 일관성]을 해체해 그것의 물질적 성격을 상실시킨다(망각하게 만든다). (2) 버틀러는 (담론적) 구성주의자이자 인간주의자이다.(앨러이모, 버라드) (2-1) 따라서 버틀러에게 모든 것은 언어의 발화행위 이후에 구성될 수 있기에, 물질은 언어 이후에 나오며, 따라서 물질(혹은 객체)은 능동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주의자(주체)들에게 작용받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버틀러는 동일성의 철학자이다. (콜브록) (3-1) 버틀러는 물질과 몸이 수행적 인용 및 반복적 수행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물질과 몸 이전에 미리 주어진 것을 인용하거나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성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버틀러는 형이상학자이자 근대적 이분법론자이다.(헤크먼, 버라드) (4-1) 버틀러는 물질(자연과 몸)을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주어진 투명한 표면으로, 언어(문화와 로고스)를 그 위에 형식이 부과되는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아니 정확히는 정리가 안 되니 나열해보자). 버틀러는 근대적 인간주의자이고 탈근대주의자이다! 버틀러는 해체주의자이고 구성주의자이다! 버틀러는 언어 형이상학자이고 언어수행주의자이다! 버틀러는 [성차와 젠더가] 구성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의 철학자이지만, [성과 젠더가] 반복적으로 인용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동일성의 철학자이다! 이 밖에도 여러 버전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텍스트의 인용가능성을 강조하는 따라서 미리 주어진 텍스트의 한계(구조) 내에서만 어떤 수행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자이지만, 성과 젠더의 구조가 매번 새롭게 구성 및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탈-구조주의자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페미니즘을 다른 ‘더 고양된’ 수준으로 옮겨놓은 주요한 페미니스트이지만, 페미니즘의 근거이자 구심점인 여성의 몸을 해체하고 상실하게 하는 자, 즉 비-페미니스트 혹은 반-페미니스트이다! 등등. 이런 점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버틀러가 서로 대립하면서도 모순적인 그러한 사상들을 한 몸에 지닌 자, 즉 분열증자, 광인(그리고 여러 머리를 가진 괴물 히드라)라는 점이다.

‘유물론’ 혹은 ‘신유물론’의 입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가해진 이 모든 비판과 이름표 붙이기는 주디스 버틀러의 책 『젠더 트러블』과 『중요한 몸』을 인용하면서 이뤄지는데, 놀랍게도 주디스 버틀러는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비판들에 대해 직접적인 응답이나 반박의 말을 제시한 바가 없다. 왜일까? 페미니즘 내부에서 가장 논쟁적인 글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는 저 초기의 책들이 비판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왜 버틀러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버틀러는 이러한 비판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침묵했거나 무시했던 것일까? 나는 이러한 비판들에는 페미니즘 내부에서 ‘신유물론’을 출발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생각이 담겨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버틀러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신유물론’을 이론적으로 참여한 어떤 물질적 구성물로 재구성할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용함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올해 2026년 한국에서 새로 재번역된 『중요한 몸』(알렘출판사)—최초 한글본은 2003년 인간사랑 출판사에서 김운상이 번역해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의 「머리말」, 「서장」, 「1장」을 주되게 참고하면서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비판에 대해 버틀러가 할 수 있는 가상적 응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포리아: 구성주의와 구조주의

1993년에 루틀리지 출판사본으로 발간된 주디스 버틀러의 책 『중요한 몸』(Bodies that Matter)은 앞서 언급한 비판들이 쏟아져나오고 난 뒤인 2011년 같은 출판사에서 재판이 발행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버틀러가 『중요한 몸』 재판에 추가적인 글을 작성해 수록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저작들에서 저 비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입장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⁶⁾ 왜일까? 신유물론의 관련 서적 대부분에는 버틀러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실려 있으며, 그게 아닌 경우에도 대체로 그러한 비판을 전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에도 말이다. 혹시 버틀러는 이미 자신의 책에서 이에 대한 응답을 충분히 제시했으며, 따라서 더 더하거나 추가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머리말」의 처음 도입부에 기술된 말들은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나는 몸의 물질성을 사고하려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으며] … 이 주제에 머물기 위해 나를 혼육했”(8쪽)다.

물론 버틀러가 생각하기에 ‘몸’과 ‘물질’은 자신들의 고유한 경계에 고정되지 않고 늘 이전에 그어진 어떤 구획선의 경계 너머로 나아가며 심지어는 정지와 고정이 불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해체(=탈구축)되거나 재구축되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정적인 사유 대상 및 글쓰기 주제가 될 수 없다. 확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취약하고 불안정한 몸과 물질의 성격으로 인해서 버틀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로고스로 되돌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9쪽)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이들(페미니즘을 부인할 수 없는 여성 신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버틀러에게 반복된 비판을 가하게 될 텐데, 버틀러 자신은 이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반응한다. “‘몸의 물질성은 어쩔 거야, 주디?’ 내가 생각하기에 ‘주디(Judy)’라고 덧붙인 것은 그보다 더 형식적인 이름인 ‘주디스(Judith)’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시도이자, 나로 하여금 신체적 삶—이 삶은 이론으로 제거될 수 없다—을 떠올리게 하려는 시도였다. 격한 짜증이 묻어나는 이 마지막 약칭에는 나를 제멋대로인 아이로, 즉 한차례 꾸짖은 다음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거절하기 힘들며 가장 부인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몸의 존재로 되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아이로 (재)구성하려는 훈계조의 말투가 배어 있다.”(9-10쪽) 그리고 버틀러는 자신에게 붙은 꼬리표 중 하나를 언급(그리고 부정하는 뉘앙스로 자문)한다. “내가 신체는 어떤 식으로든 **구축된다**는 이런 생각을 고집했다면, 어쩌면 나는 정말 오로지 말(言)만이 신체를 그 자신의 언어적 실체로부터 만들어 낼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10쪽/강조는 본문 그대로)

버틀러는 자신에게 붙은 꼬리표인 ‘언어적·문화적·담론적 구성(구축)주의자’가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히면서도 또 다른 꼬리표인 ‘언어 구조주의자’(따라서 문화적 결정론자) 역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아포리아를 제기한다. 즉 ‘젠더가 선택되거나 구축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젠더를 선택하는 주체를 미리 인간주의적·의지주의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젠더가 규범적으로 강제되어 앞선 형태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문화적 결정론(혹은 구조주의)의 뒷에 빠져 어떠한 형태의 수행성이나 행위성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아포리아는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는 구성된다’, ‘젠더는 강제(적으로 반복)된다’ 중 어느 한쪽에 자기 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⁷⁾

6) 2011년 이후에 발간된 저작들(/이후는 한글 번역본 발간)로는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2012/2016), 『박탈』(2013/2016),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2015/2020), 『비폭력의 힘』(2020/2021),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2022/2023),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2024/2025)이 있다.

7) 구성(구축)주의 비판. “내가 젠더들이 수행적이라고 주장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 벽장인 아니면 좀 더 열려 있는 공간[이동식 옷장]을 살펴보면 낮 동안 입을 젠더를 골라 입고, 밤에는 그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그렇다면 구축되는 것도, 강제되는 것도 아닌 몸의 물질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버틀러는 다음과 같은 응답의 전략을 『중요한 몸』 전체를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몸의 물질성을 둘러싼 다른 혁신적인 ‘개념의 발명’(더 정확히는 발견)을 통해.(머리말, 서장, 3장) 둘째, 물질성을 구성하는 철학 내에서의 계보학을 그려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1장) 셋째, 몸과 성의 물질성을 둘러싼 정신분석학적 담론 안에서 그 담론과 대결하면서.(2장, 3장, 7장) 넷째, 몸의 물질성의 경계가 완전히 담론화 가능한 것도, 담론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문학 작품의 사례로 평가하면서.(4-6장) 다섯째, 몸-성/젠더-물질이 실천적으로 자신을 구성해낸 사례를 통해.(8장) 나는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첫째, 둘째, 넷째 방식을 주제로 다룰 것이다.

개념의 발명(견): 탈구축으로서의 물질화 과정과 떠맡음

개념의 발명(발견)은 두 가지로 전개된다. 첫째, 물질과 권력작용을 분리불가능한 것으로 재구성하기. 둘째, ‘떠맡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차원의 제시. 먼저 물질 개념의 재구성을 위해 버틀러는 몸과 물질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①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는 신체, 그것도 여성의 신체를 미리 주어진 자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것에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페미니즘적 실천이 가능하게 할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 기능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에 뛰어들고 동원될 대중을 형성하는 어떤 구심점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것은 손쉬우면서도 즉각적으로 확인될 생물학적 신체의 동질성[이 있다는 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소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심점의 장이 되는 바로 그 신체, 그 물질은 최소한 어떤 경계짓기와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권력의 역학, 규범적 체제를 전제했을 때에만 구심점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몸의 물질성은 그러한 몸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드는 규제적 규범의 작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너는 텅 빈 몸이 아니다. 너는 남자이거나 여자여야 한다. 페미니즘이 성립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하며, 여자가 있으려면 어떤 몸에게 여자라는 호명을 가하는 힘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로 작동하는 이러한 권력의 역학이 없다면 몸의 물질성은 성립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신체라는 물질을 권력 역학의 효과로 다시 만들어내기”(23쪽)는 페미니즘의 자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하지만 그러한 권력 역학은 ‘어떤 몸의 탄생과 함께 단 한 번’ 가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성과 몸을 둘러싼 어떠한 본질주의도 물질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몸은 규범적 체제가 작동하는 특정한 사회적 질서 내에서 어떤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번 다시 새롭게 권력의 역학 속에 놓인다. “수행성을 반복적인 담론 권력으로 이해하기” 이것은 어떤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라고 호명된 그러한 몸이 놓인 그 규제적 질서를 “생산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담론 권력으로 이해”(23-24쪽)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되는 너의 몸은 도대체 무엇인가? 너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매일 매 순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너로 하

이러한 이론은 선택하는 주체, 즉 인간주의적 형상을 복원시킬 것이라는 점[이다.]”(11쪽) 구조주의 비판. “만일 젠더가 권력 관계를 통해 구축된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젠더가 다양한 신체적 존재들을 생산 및 규제하는 규범적 제약을 통해 구축된다면, 생산적 제약의 효과인 이러한 젠더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행위성이 도출될 수 있는가?”(11-12쪽)

여금 이 사회 안에서 “살고, 죽고, 먹고, 자고, 고통과 쾌락을 느끼고, 질병과 폭력을”(12쪽) 견디게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성’은 무수한 시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 및 재확인되는 “문화적 규범”(24쪽)이다. 이는 어떠한 자연학이나 생물학도 사회와 규범, 인식과 언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자연이나 생물을 범주로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지적 접근을 허용하는 일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성별이 아니며, 전체 사회의 장 속에 포함된 모든 이들의 수행적 행위의 반복이 복종되거나 위반되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다. 신체는 그렇게 규범 안에서 각 개인들의 물질적 행위의 효과로서 생산된다. ‘너는 우리 사회가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너의 존재를 생산하려는 개인들의 활동적 규범의 결과물이자, 또한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규범을 거부한 결과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의 몸을 몸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너는 물건이나 동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여자이거나 남자이다.’

다음으로 버틀러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몸과 성의 물질성이 강제도, 자유의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④ 그때 발명(견)된 개념이 바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 주제 중 하나인 ‘떠말음’(Assumption)이다. 즉 우리를 사회 안에서 살게 하고 사회적 삶을 획득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성과 젠더는 순전히 강제된 것도, 순전히 자발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떠밀리듯 강제되는 어떤 규범적 질서 안에서 물질적 삶을 살지만, 또한 바로 그러한 질서 안에서 승인, 인정, 거부, 부인, 전유, 역전 등등의 선택적 의지(가 있다고 상정된)를 매번의 수행적 반복 속에서 가동시킨다. “몸의 규범이 떠맡겨지고 전유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다시 생각하기”(24쪽)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는 “하나의 성을 떠맡는 과정을 거치는 덕분에 형성된다.”(24쪽) 보바르 이래로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는 성과 젠더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성은 자연을, 젠더는 사회를 특징짓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 젠더는 떠맡음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은 기능적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만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

“성과 젠더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이 역사를 가진다는 점, 자연이 그저 사회적 역사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또한 성이 자연 개념 및 그것의 역사와 관련해 애매하게 위치지어진다는 점 등을 놓친다. ... 성 개념은 역사를 가지지만, 이 역사는 성이 각인의 현장 혹은 표면으로 형상화되면서 철저히 은폐된다. 또한 그러한 현장이나 표면으로 형상화되는 자연적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더욱이 자연적인 것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가치를 떠맡는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성격도 떠맡는데, 이는 자연이 자연적이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 자연적인 것의 사회적 구축은 사회적인 것에 의한 자연적인 것의 삭제 전제한다.”(28쪽)

즉 성(sex)은 미리 주어지고 젠더(gender)는 그 위에 추가되는 어떤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이 먼저 “받아들인 사회적 의미들에 의해”, 젠더는 “다시 위치 지어지”며, 그 과정에서 성은 떠맡음의 과정에서 선택이 포기되는 어떤 것으로, 젠더는 성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 성이 놓인 그 자리가 가진 의미를 “흡수 및 대체하는 용어로 출현한다”(29쪽)는 점에서 성과 젠더는 구별될 뿐이다. 다시 말해 젠더는 어떤 ‘성을 가진 몸’, 미리 ‘자연적이라고 가정된 어떤 몸의 요소를 가진’ 그 존재를 사회적 실체로 성립시키면서 성의 자리를 차지한다.

⑤ 그렇다면 ‘성’은 무작위적인 몸을 특정한 젠더와 연결시키고는 이내 사라지는 어떤 것, 즉

‘소실 매개자’에 불과한 것인가? 버틀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성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현장에 소급적으로 설치된 어떤 허구와 같은 것, 어쩌면 환상과 같은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가? 즉 성이 진실인 것에 대한 허구이자 진실에 맞서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 성이 실재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자 실재하는 것에 맞서는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가?”(30쪽) 그리고 버틀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적 구성(구축)주의로부터 나온 비판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축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성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이나 표면으로 보고 젠더를 그 표면 위에서 구성되는 어떤 의미의 질서인 듯 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성’은 어떠한 구축도 이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수동적 물질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언어적·문화적 구축주의가 가진 전제, 즉 사회 내에서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이 구축될 수 있다는 그 자신의 전제를 위반하면서 스스로 한계가 있는 관점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과 젠더 모두를 “떠맡는 이러한 과정을 동일시의 문제나 담론적 수단과 연결”(24쪽)함으로써 우리는 ‘너는 너의 성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없다. 그러한 떠맡음 속에서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인 젠더화된 실체가 되었다.’

버틀러는 이러한 ‘떠맡음’이라는 개념적 전략을 통해 ‘성과 젠더’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그런 점에서 구축주의와 본질주의의 논쟁과 대립에서 빠져나와 ‘떠맡음의 구축’-‘본질의 형성’-‘승인과 부인의 수행을 통한 탈구축(해체)’-‘규범적 질서로의 반복적 진입을 통한 재구축’의 논리적 응답을 제시한다. 참고로 나는 이런 점에서 번역서에서는 ‘deconstruction’를 단순히 ‘해체’로 이해하기보다 물질적 구축의 물질적 재구축을 위한 과정으로서 이해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탈구축’의 용어로 옮기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버틀러는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인간주의와 구조주의, 주체주의와 객체주의 사이에서 ‘탈구축’의 개념적 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물질 개념을 재규정하는 것에 이른다. “물질 개념은 현장이나 표면으로서의 물질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경계, 고정성, 표면의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화되는 물질화과정으로서의 물질 개념”(37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질성을 둘러싼 철학적 계보

* 신체(성별)는 물질적이고, 기표(젠더)는 비물질적이다라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1) 이것은 기표의 물질성을 간과한다.

(2) 이것은 물질이 의미화와 연결되(도록 강제하는 권력 작용과 동시에 형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물질을 언어 바깥에 위치시키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물질성을 가진다는 말을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오래전부터 여성성은 물질성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질(matter)은 어머니(mater)나 모체(matrix)(혹은 자궁)와 연결하며, 따라서 재생산의 문제들과 연결한다. 물질을 생성이나 발원의 현장으로 보는 고전적인 배열은 한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것의 기원적 원리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78쪽)

* 그리스어 휠레(hyle)는 “나무나 목재를 의미하지만 또한 인과적이면서 동시에 설명적인 기원, 발전, 목적론의 원리이기도 하다.” “물질-기원-의미성 간의 이러한 연결은 고전적인 그리스어 휠레가 지닌 물질성과 의미화의 분리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한 대상에게 중요한 것 (matter)은 그것의 물질(matter)이다.”(78쪽)

① 아리스토텔레스/푸코

-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영혼은 물질(잠재력)의 현실태이다. 물질은 형식, 형상(스키마)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물질은 인식가능성과 분리될 수 없다.
-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페미니즘이 필요로 하는 몸은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목적론은 여성들을 그 신체로 인해 수령해야 할 특정한 과업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여성은 재생산이라는 몸의 숙명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푸코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키마 개념을 권력/담론의 연쇄로 이해하고자 했다. 즉 영혼은 몸을 생산 및 현실화하는 권력을 담은 스키마이다. 푸코에게 영혼은 규범적 이상이자 규범화하는 이상이다. 그에 따라 몸은 그렇게 훈련되고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 영혼에 예속된 몸은 종속되는 것이자 주체화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 하지만 버틀러가 보기에 푸코가 가진 생각, 즉 권력은 신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라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은 신체와 외부적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가 가진 전제가 그렇듯, 주체들이 담론 이전에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역설적이게도 페미니즘이 반대하고자 하는 권력은 자신의 은폐효과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몸을 가졌다고 전제하는 주체들을 담론 이전에 미리 주어진 것으로 그려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담론 이전의 주체를 상징하는 것, 즉 여성 몸의 자연화는 권력의 은폐작용이 성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 푸코의 형성적, 생산적 권력관은 권력과 몸, 물질성을 분리시키지 않는 어떤 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지만, 무엇이 그러한 권력의 제약적, 강제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며 그러한 물질화의 양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 즉 권력의 물질화하는 작용은 어떤 것은 인식가능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인식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중요하다. 푸코는 권력 작용을 통한 인식 불가능의 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인식가능과 인식불가능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했다.

② 플라톤/이리가레

- 이리가레는 플라톤을 분석하면서 바로 이렇게 푸코가 설명해내지 못하는 지점을 플라톤의 철학 속에서 파악했다. 이리가레의 과제는 “형상/질료의 구별도, 신체와 영혼의 구별이나 물질과 의미의 구별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그녀의 노력은 그보다는 그러한 이항 대립이 파괴적 가능성의 장을 배제함으로써 공식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녀의 사변적 테제는 그러한 이항 논리가 그것의 화해된 방식에서조차 ‘여성적인 것’을 자신의 구성적 외부로 생산하는 남근 로고스 중심 경제의 일부라는 것이다.”(89쪽)
- 그런데 이러한 이리가레의 플라톤 독해가 페미니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즉 여성이 없는 철학(사)에서 어떻게 여성적인 것의 자리를 찾고, 철학의 안팎의 경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철학 텍스트들에서 어떻게 여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

- 비록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이 물질성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고, 그러한 물질-여성을 남성들이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했지만, 이리가레는 사실상 “여성적인 것이 바로 그러한 이항 대립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이항 대립에 의해 배제된다고 주장”(92쪽)한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이항 대립의 경제 내에서 재현되는 때와 장소가 바로 그들[여성들이] 삭제되는 현장”이며, “물질이 철학적 서술 내에서 묘사될 때, 그 물질은 여성적인 것의 대체이자 동시에 전위인 것”(92쪽)이라고 보았다.
- 이리가레는 자신이 속할 수 없는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언어를 택하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그러한 담론들의 소유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이때 이리가레는 그러한 철학과 정신분석학 담론 속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말의 오용’, ‘여성적인 것을 배제하는 고유명’을 폭로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한다.
- 참고로 버틀러는 이때 이리가레의 철학이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이는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에서 이리가레에게 가했던 비판이기도 하다), 이리가레를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을 제공한다. 즉 이리가레는 ‘본질’을 형이상학적 진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으로서 ‘본질’이라는 말을 흐리며 오용하는 형태의 모방적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말이다.
- 이리가레가 보기에 플라톤 이래로 남근 로고스 중심 경제 내에서 ‘물질성’은 주제화될 수 없으면서도 여성적인 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휘포도케(그릇)로 그러한 물질은 “플라톤 경제의 구성적 외부를 지칭”(95쪽)한다.
- 이리가레와 유사한 형태로 이항 대립의 관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데리다의 ‘대리보충’ 개념이 있다. 데리다는 “질료/형상 구분에 대해 사고하면서 또한 물질이 이항 대립 내의 한 극이자 동시에 그러한 이항 계사를 초과하는 것으로 즉 이항 계사의 비-체계화 가능성을 위한 형상으로서 이중화되어야 한다고 제안”(96쪽)한다. 이리가레와 데리다 모두에게 있어 “이항 논리로부터 배제된 것은 또한 배제의 방식으로 그것[이항 논리]에 의해 생산되며, 절대적 외부로서 분리될 수 없거나 혹은 완전히 독립적인 실존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구성적 외부 혹은 상대적 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주제화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서 그러한 체계에 내적인 일련의 외부로 구성된다. 그것은 비일관성, 혼란, 그 자신의 체계성에 대한 위협으로서 체계 내에서 출현한다.”(97쪽)
- 그렇다면 플라톤의 물질 개념의 이러한 구성적 외부, 이러한 말의 오용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 발생을 다음 세 가지 자연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첫째, 생성의 과정, 둘째, 생성이 일어나는 곳, 셋째 생성된 사물이 자연적으로 생산된 닳음을 띠는 이유. 우리는 ‘생성의 과정’이 근원이자 원천으로서의 아버지, ‘생성이 일어나는 곳’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몸, ‘생성의 닳음’이 부모의 형상을 닳은 자연으로서의 아이를 지시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다. “수용 원리를 어머니와, 근원이나 원천을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자연을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티마이오스』, 50d) 그런데 이러한 오이디푸스 삼각형 구조 속에서 특히 어머니를 묘사하는 플라톤의 언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톤은 이러한 수용 원리를 한편으로는 “유모”라고 지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신체를 받아들이는 보편적 자연”(99쪽)으로 지시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플라톤이 부과하는 의미는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여성을 ‘받아들이기, 즉 디케스타이, 갖기, 수락하기, 환대하기, 포함하기, 심지어 이해/포괄하기 등’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휘포도케(그릇)이라고 명명하지만, 그러한 수용원리는 어떤 적절한 형태를 갖는 것도, 어떤 몸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이상하고 모순적인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것은 코라(물질)를 둘러싼 어떤 미묘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러한 그릇/유모는 인간 형태와의 닮음에 기초한 은유가 아니라, 인간의 경계에서 출현하는 비형상화인데, 이는 그것이 인간의 바로 그 조건이자 인간의 기형에 대한 집요한 위협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즉 그릇/유모는 어떤 형태나 형(形)을 취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몸일 수 없다.”(103쪽, 강조는 버틀러)
- 버틀러가 보기에 이러한 이리가레의 이해는 데리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것을 보여 준다. 즉 그릇으로서의 여성적인 것은 자신의 형상화를 초과하며, 따라서 여성적인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한 여성적인 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주제화, 형상화할 수 있는 필연적 근거를 구성한다. 즉 데리다의 ‘대리보충’이 어떤 형상화를 초과하는 보충물을 그려낸다면, 이리가레는 그러한 보충적이고 잉여적인 초과물이 모든 것을 주제화, 형상화하는 필연적 근거임을 밝힌다. 그렇다면 코라(물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일 코라가 여성적인 것이나 모성적인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면, 세계 구성의 근원적인 물질적 바탕에 여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은 모든 형태의 법과 규범, 문화 이전에 발생하는 어떤 기호가 될 것이며(크리스테바), 코라가 여성적인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면, 그것은 여성은 물질화되거나 규정되거나 의미화될 수 없는 어떤 재현불가능의 영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이리가레)
- 이리가레에게 있어 남성/여성의 이항 논리의 세계 속에서 코라는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유모(남성이 탄생시킨 아이를 받는 자이자 임신능력을 거세당한 자)로서, 즉 남근 로고스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어떤 반사된 거울의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보편자 남성에게 재생산 이미지를 빼앗긴 수동적 특수자로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라는 보편자 남성을 닮거나 인접할 수 없는 이미지, 따라서 어떠한 닮음도 허용될 수 없는 것, 여성적인 것이나 인간적 이미지조차 상실한 것인 그릇으로서 나타난다. “그 어떠한 형태와의 유사성도 금지된 여성화된 그릇…은 어떠한 존재론적 위상도 가질 수 없는데, 존재론은 형태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릇은 형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론적 규정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109쪽) 그릇은 마치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 지칭할 대상이 없는 말,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담고 있으면서 어떤 것도 아닌 말이 된다. 이름붙여졌지만, 어떠한 이름도, 규정도, 정립도 허용하지 않는 이상하고 모순되고 오용된 이름. 바로 그것이 이리가레가 본 플라톤의 ‘코라’ 개념의 위상이다. 그리고 버틀러는 이에 대해 이러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리가레는 남근 경제를 반복하면서 전위하는 일을 수행한다. 바로 이것이 인용이다. 하지만 이 인용은 원본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원본에게 노예화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원본의 바로 그 항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복종으로서의 인용이자, 플라톤이 스스로에게 주장한 것처럼 보이는 발원의 힘을 의문시하는 인용이다.”(112쪽, 버틀러의 강조) 정리하면, 이리가레는 철학 자신이 늘 인접성을 포기하고자 했던 저 물질 개념의 발생을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한다. 첫째는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에 기여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둘째는 “비판적 모방의 가능한 언어적 현장을 표시하는 우려스러운 정도로 사변적이며 말 오용적인 근거가 없는 형상”(116쪽)으로.
- 이것은 코라라는 물질성이 이중적 심급, 즉 한편으로 형상의 복사본으로, 다른 한편 물질성에 기여하지 않는 물질성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물질성은 남근 중심 경제 내에서 반사적 이미지로서 기능하면서도, 또한 인식불가능하고 기입불가능하고 재현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물질성을 통해 여성 몸이 ‘구성

적 외부'로 나타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코라 개념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첫째, 코라(물질)는 남근 경제 내에서 거울화된 이미지로서의 여성 형상을 상징한다. 둘째, 코라(물질)는 남근 로고스 경제 바깥으로 밀려난 여성 형상을 말하는데, 이는 어떤 점에서 어떤 여성도 물질(몸)로 기입될 수 없는 의미화 불가능성의 형상이다. 셋째, 코라(물질)는 여성 몸에 가한 배제와 폐제를 드러내는 폭력적 개념이면서도 또한 바로 그것으로 인해 남근 로고스 경제가 작동하는 어떤 외부로서의 여성 몸을 드러낸다. 넷째, 코라(물질)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말 오용의 형상이다. 다섯째, 코라(물질)는 여성 몸이 의미화의 장으로 적절하게는 진입할 수 없는 이름임을 드러내며,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경계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차하는 몸의 경계와 부적절한 이름의 정치

버틀러는 이리가레가 플라톤의 코라를 통해, 즉 코라가 그려내는 말 오용의 맥락을 통해, 그리고 그것[말 오용]을 모방함으로써 재현될 수 없는 여성 몸의 차이를 그려낸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물론 의미화될 수 없는 차이나는 여성 몸은 그대로 삶을 긍정하는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방되어 이해된 여성 몸은 늘 규범과 의미화의 지대로 진입하지 못한 비체의 형태에 머물 수 있고, 여성 몸을 배제하고 폐제시킨 그러한 폭력의 상처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몇 가지 개념적 분석에 입각해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나는 버틀러가 그것이 펼쳐지는 정치를, '왜곡되고 비틀린 양가적인 모방의 정치', '부적절한 이름의 정치', '혼동을 주는 위반과 침범의 정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각각 4장, 5장, 6장의 주제로 드러난다.

(1) 양가적인 모방의 정치(4장)

- 버틀러가 보기에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양가적인 모방, 친족의 재결합, 실패한 헤게모니 권력의 반복이라는 주제를 던진다. 이 영화는 한 문화 안에는 주체들의 생산과 예측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체 생산 및 주체 예측의 과정 속에서 특정한 주체를 배제 및 소멸시키고자 하는 힘이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소멸의 규범이 모방되고 교정되고 재의미화되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제니 리빙스톤이 제작, 감독한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뉴욕 할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나 라틴계 남자들이 모여 공연하는 '드랙 볼'을 촬영하고 그 뒷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이다. '드랙 볼'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경쟁하는 경연 대회로, 이 카테고리들에는 기업 임원이나 아이비리그 학생이 드러내는 백인 문화 내의 계급 기호 모방 경연, 생물학적 여성성을 모방하면서 보깅 및 포징을 심사하는 드랙 퀸 경연, 상징적 여성성을 극도로 과장하는 드랙인 하이 드랙(high drag) 경연, 군인의 의상을 입고 생물학적 남성성을 모방 및 과시하는 경연—장교, 군악대, 의장대로 분해 화려한 깃털 장식, 탄띠, 군화 방울, 지휘용 칼 등이 추가된 의상을 입고 제식 동작을 반복— 등이 있다. '리얼리스'(Realness)[진짜같음]는 이러한 경연들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는 규범을 체현하거나 되풀이하고, 인

종·계급·성별·섹슈얼리티를 모방 및 사칭하는 방식으로, 흉내내기를 하지만 완전히 그 근사치에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퍼포먼스의 '형태학적 이상'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방은 기성의 계급·성별·섹슈얼리티의 규범을 탈자연화해 규범을 전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주어진 규범을 하나의 이상으로 다시 재이상화함으로써 규범을 강화하는 것인가?

- 영화 속 인물 중 한 명인 비너스 엑스트라바간자는 자신의 집(하우스 오브 엑스트라바간자)을 운영하면서 엄마로써 드랙 볼 무대에 서려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 영화에서 그녀는 그러면서도 성전환 수술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매춘을 하지만 그녀의 아직 수술되지 않은 성기를 본 고객에 의해 욕설을 듣고 도망친 경험을 말하는데, 몇 달 뒤 실제로 그녀는 고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교살되고 호텔 매트리스로 가려진 채 발견되었다. 엑스트라바간자는 계급 특권과 인종 특권, 그리고 성별 특권을 가졌다고 그녀가 상상한 그러한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이 경우 엑스트라바간자가 재현하고 모방하려는 젠더는 그 자체로 순수한 형태일 수는 없는, "인종과 계급의 연쇄 및 그러한 접합의 현장을 환영적으로 변형시키는 매개체"(271쪽)이다. 따라서 성차나 젠더 차이의 질서는 인종이나 계급의 질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리얼리스 경연'은 리얼함의 규범(즉 상징계가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는 규범)은 환영적 지위에 근접하면서도 그것을 폭로하는 이중의 운동을 보여준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행하는 "수행의 반복 가능성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러한 반복은 그것이 생산되는 리얼함의 규범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불법화하기 위해 작동한다."(273쪽)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었듯이, 이때 리얼함 규범은 합법화한다는 환상을 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리얼함의 흉내, 모방은 이 사회에서 삭제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어떤 위반의 이미지, 따라서 실질적인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드랙, 성전환, 헤게모니적인 것에 대한 무비판적 모방 등으로 이뤄지는 실제 전환"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거부되고 비체화되는 동일시 현장을 구성한다."(274쪽) 하지만 이 동일시 현상이 곧바로 해방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엑스트라바간자를 위시한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한 '성의 탈자연화'가 섹스/젠더 체제로부터의 해방이나, 섹슈얼리티의 해방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늘 기존 규범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자아내고, 현실에서는 곧바로 삶의 경계 바깥으로 내몰리는 죽음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무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드랙 볼 경연을 통해 "명성과 인정"을 얻고, 자신들 안에서 어떤 "전설의 지위를 획득"(277쪽)할 뿐만 아니라,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집해 "서로를 '부양'" 하면서도 "일련의 친족 관계를 이루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가족을 재의미화는 것은 헛되거나 쓸데없는 모방이 아니라 사회적·담론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즉 서로를 결속시키고 돌보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유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283쪽)이다.

-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유효한 반란이나 고통스러운 재복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의 불안정한 공존을 기록하고 있다.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바로 그 역-점유를 폐제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규범을 성애화하고 모방하는 고통스러운 쾌락을 증명한다."(284쪽) 바로 이 점, 즉 반란과 복종 사이에서 우리는 드랙의 양가성, 수행의 양가성, 모방의 양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랙 볼을 영화화한 「파리는 불타고 있다」는 복종과 반란이라는 모순되는 듯 보이는 양가성, 삶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장이자, 고통과 죽음을 재생산하는 장으로서의 양가성을 드러낸다. 이 양가성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드랙'을 한편으로 전복과 위반으로서 이상화하는 데 머물거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규범의 복종 및 재생산의 장으로 폄하하는 데 머물게 된다.

(2) 부적절한 이름의 정치(5장)

- 버틀러는 윌라 캐더의 작품을 읽을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이름을 어떻게 동일시의 현장으로, 즉 동일시의 역학이 작동하는 현장으로 읽을 것인가, 또는 이름을 어떻게 교차-동일시를 재이론화하는 계기로, 더 정확히 말해 모든 동일시 실천에서 작동하는 교차를 재이론화하는 계기로 읽을 것인가에 있다”(294쪽)고 말한다. 이것은 여성의 몸이라는 물질성과 이름의 관계를 밝혀주는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그러한 이름은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부적절한 이름’으로서 기능할 때 어떤 적절한 의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 윌라 캐더는 흔히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남성과 동일시되는 작가, 화자를 남자로 상정하거나 남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294쪽)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초창기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연상시키면서 ‘윌’이라는 단축된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했으며, 교차-드레싱[=남장]의 여성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상화된 남성성을 강하게 지향하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그녀의 작품 「감상적이지 않은 토미」는 그러한 어떤 인물의 등장을 보여주는데, 버틀러는 바로 그것을 통해 윌라 캐더가 감추고 은폐하고 싶어했지만, 또한 바로 그 과정에서 드러낸 레즈비언으로서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윌라 캐더의 작품을 통해 드러난 ‘이름의 정치’를 통해 확인된다는 것이다.
- 『중요한 몸』 5장 중 한 절인 「부담스러운 이름들」을 보자. 캐더는 소설 『나의 안토니아』를 ‘나’가 등장하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데, “이때의 ‘나’는 전에는 소개된 적도 없고 실제로 이름이 붙여진 적도 없는 화자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은 원저자가 아닌 저자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남성 인물인 짐 버든(Jim Burden)이다. 이렇게 캐더는 짐 버든을 저자로 등장시키고 임명함으로써 익명의 나를 버든의 뒤로 숨기고 따라서 익명의 나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은폐시키는 데 성공한다. 『나의 안토니아』에서 여성 안토니아는 실제로는 저자인 캐더의 욕망의 대상일 수 있지만, 글 속에서는 짐 버든이라는 남성 저자의 입을 통해 에피소드가 설명되는 대상, 따라서 짐 버든의 이성애적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된 어떤 대상이 된다. 나와 짐은 이름의 사용을 통해 자리가 바뀌고 즉 전위되고 그러한 한에서 저자의 욕망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며 따라서 금지와 위반의 자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이성애적 사랑의 경계 내에서 안토니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나는 저자인 나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나의 레즈비언 욕망을 하나의 짐꾸러미로 짊어진 어떤 존재(버든Burden)로서 전위된 상태에서 서술을 이어간다. “이러한 ‘나’는 물리나는 표시, 즉 익명성으로의 후퇴를 실행하는 표시, 스스로를 삭제하는 대명사 표시이며, 그리하여 이성애 관습이라는 바로 그 모체 내에서 글의 주제를 벗어난 혼란으로서 다시 나타나는 무언(無言)의 조건이 된다.”(301쪽) 이제 짐 버든의 말은 늘 인용문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의 발화는 이제 인용하는 사람에게서, 즉 인용 안에서 아니 오히려 인용으로서 행위하는 자로 전위된 이름없는 사람에게서 소급적으로 그 기원과 근거를 획득하는 하나의 인용이다.”(302쪽)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새롭게 생성된 발화의 가능성, 욕망 표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를 은폐할 이 인용으로 표상화된 부담을 진 인물인 짐 버든은 내가 떠안아야 할 어떤 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저자인 나는 짐 버든을 정상성의 세계 속에서 끌어오고, 나아가 가장 이성애적으로 포장된 법적 인물(작중에서 짐 버든의 직업은 변호사이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언어는 법적 언어에 구속되

고 이성애적 인물의 욕망을 표현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서 불리하고 부담스러운 조건 속에서 서술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는 다시 「감상적이지 않은 토미」의 상황에서는 역전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토미는 은행장이자 아버지인 토마스 셸리의 이름을 흉내내고 전유한 인물인 토미 셸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녀는 부계명을 흉내내지만,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톰보이의 톰을 연상시키면서도 영클 톰의 톰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며, ‘손재주가 서투른 톰’ 또는 ‘진실한 헛바닥의 톰’처럼 남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준-고유명을 끌어와 자신과 동일시될 수도 있는 인물 토미를 다룬다. 토미는 겉으로는 무능력하고 한심한 남성 제이 엘링턴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리에 위치시켜지지만, 그녀가 경쟁자로 여긴 여성 제시카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와의 사랑을 숨길 수 있는 어떤 인물로서 등장한다.
- “「감상적이지 않은 토미」가 그려내는 서사의 궤적인 일종의 희생, 즉 아버지의 자리를 전유함으로써 토미에게 발생하는 희생으로 읽힐 수 있다. … 여기에 ‘잔혹한 억제’가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반사적 희생, 레즈비언 사라의 가치하락으로 정점에 이르는 이중적-방향의 여성 혐오이다. 이는 욕망을 말살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때에는 교차-동일시라는 대사를 치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이름이 금지를 자리 잡게 하고 그러한 금지가 동일시와 욕망의 폐제를 동시에 합동 연주할 때에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게 아버지의 자리와 동일시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토미’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정체성도 지시하지 못하는 이름이 되지만, 또한 동성애 금지로 생산된 전유와 박탈을 조장하는 이름, 그리하여 빼앗긴 것이 또한 양도되는 현장이자, 레즈비언 욕망의 비영속성이 제도화되는 현장으로서의 이름이 된다. 하지만 토미는 제이 엘링턴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비축하고[구해 내고], 그녀 자신을 미래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돌아올 수익이나 미래의 만족을, 어떠한 보장도 없어서 어쩌면 기대에 불과한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다.”(333쪽)

(3) 혼동을 주는 위반과 침범의 정치(6장)

-